

최근 중국경제 동향(“중국발 쇼크” 관련)과 시사점

작성자 : 조현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장

【hjcho@kiep.go.kr, ☎ 3460-1153】

主要內容

- 최근 중국정부가 경기진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이 없는 한 금년에도 8% 이상의 고속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의 급격한 긴축 내지 경착륙 가능성은 작으며, 한국의 對中 수출증가율 급락 가능성도 크지 않음. 중국의 부분적인 경제긴축이 한국의 대중 경제교류에 미칠 직접적 파장은 업종과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중국의 경기진정 방침이 “중국발 쇼크”로 비쳐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해온 사실을 반영함.
-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비교적 「손쉽게」 늘어나는 중국수출에 만 안주하지 말고, 장차 우리의 대중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 국내에서 제조업의 고도화나 성장동력산업의 개발이 지연된다면, 국내 자본과 인력이 중국으로 빠르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對中 직접투자가 점하는 비중은 '01년 1.1% → '02년 1.5% → '03년 2.3%로 빠르게 상승.
 - 종래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국제화경영의 일환으로 본사(뿌리)는 한국에 둔 지역적 투자였으나, 향후 뿌리까지 중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04년 4월)에 따르면, 91개 응답자 중 이미 생산시설을 완전히 중국에 이전한 업체의 비중은 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외신회견(4.28)에서 경기진정 방침을 천명한 뒤 이른바 ‘중국발 쇼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이 방침을 작년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했고, 올 3월 초에 금년 경제성장률 계획치를 작년의 9.1%에 크게 밑도는 7%로 발표
 - 이미 중국은 두 차례나 은행의 저준률을 인상하고 지방정부와 은행의 과도한 투자와 대출을 통제해 왔음. 이는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등 일부 부문의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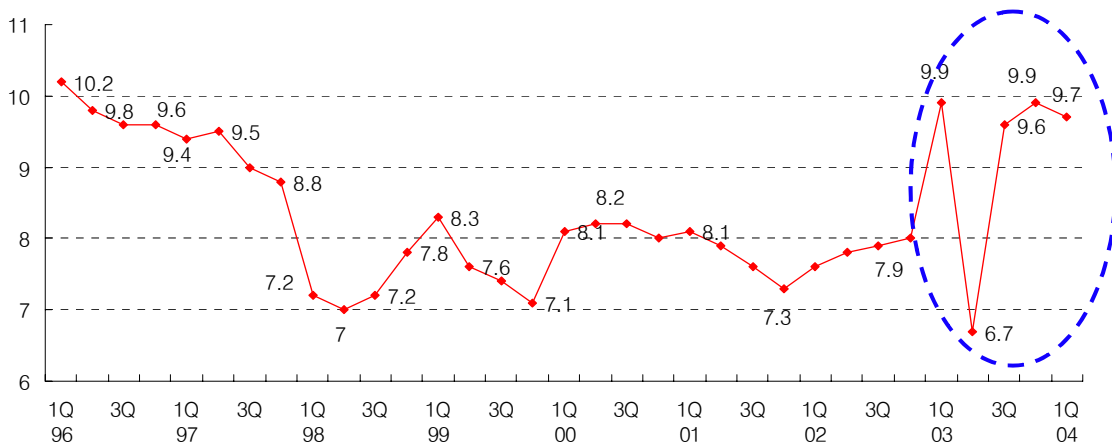
1. 최근 중국경제 동향

- 중국이 지난 수년간 연초에 발표한 성장률 계획치는 늘 7%였으나 실제성장률은 계획치를 계속 상회함. 금년에도 이 관행은 계속될 가능성이 큼.

가. 초고속 성장률 시현 : 작년 한해 9.1%, 금년 1분기 9.7%

- 최근 중국은 경기진정책이 필요할 정도로 초고속 성장 추세를 시현
 - 2003년 9.1% 성장(1996년 이래 최고)에 이어, 2004년 1분기에도 9.7% 성장. 분기별 성장률은 2003년 1분기 9.9% → 2분기 6.7% → 3분기 9.6% → 4분기 9.9% → 2004년 1분기 9.7%를 기록 (2003년 2분기는 이라크전쟁과 SARS 영향 집중으로 성장률이 저조)

<그림 1>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표 1>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분기별 변화)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1Q	1-2Q	1-3Q	1-4Q	1Q
GDP 성장률	8.0	9.9	8.2	8.7	9.1	9.7
1차산업	2.9	3.5	2.7	2.8	2.5	4.5
2차산업	9.8	12.1	11.6	12.2	12.5	11.6
3차산업	7.5	7.9	4.2	5.4	6.7	7.7
공업생산	12.6	17.2	16.2	16.5	17.0	17.7
고정투자	17.4	31.6	32.8	31.4	28.4	43.0
소비	8.8	9.2	8.0	8.6	9.1	10.7
수출	22.4	33.5	34.0	32.3	34.6	34.1
수입	21.2	52.4	44.5	40.5	39.9	42.1
FDI	12.6(527억\$)	56.7	34.3	11.8	1.4(535억\$)	7.5(141억\$)
소비자물가	-0.8	0.5	0.6	0.7	1.2	2.8
M2	16.8	18.5	20.8	20.7	19.6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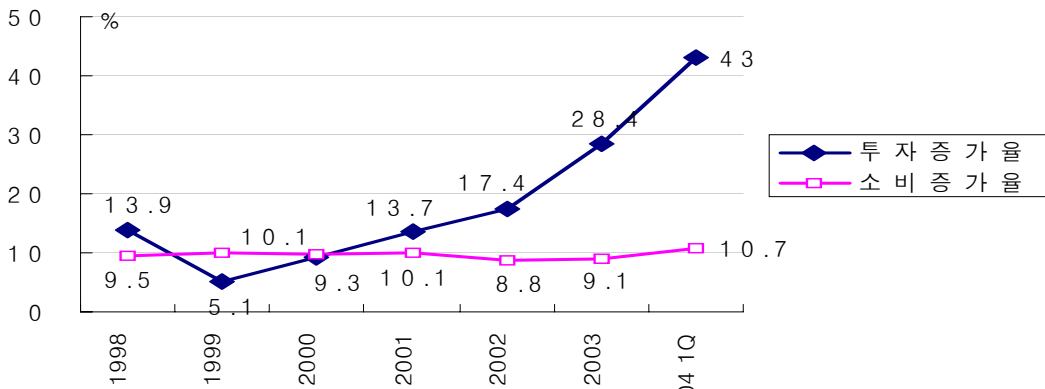
주 : 공업생산과 고정투자 통계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기업이나 개인의 생산 및 투자 불포함.

자료 : 필자 정리 (참고: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2004년 2,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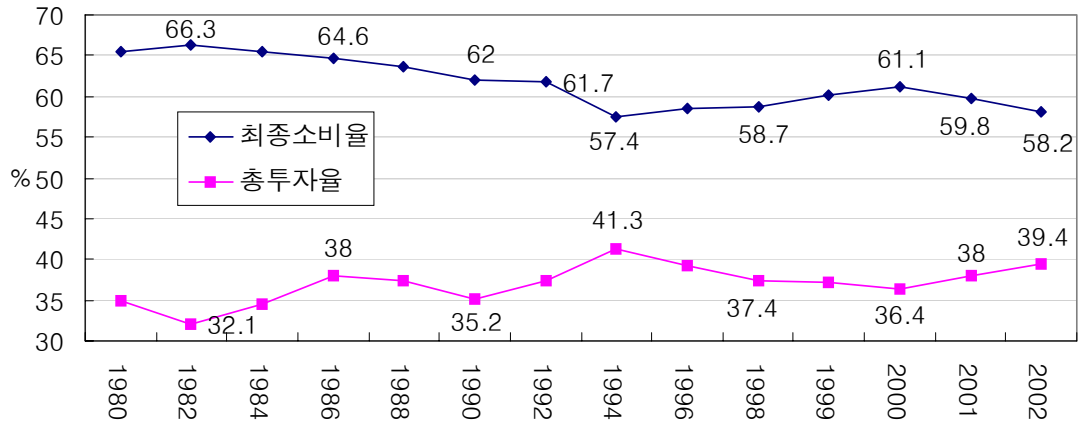
나.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은 투자와 수출이 주도

- 중국은 1990년대 중반이래 내수확대를 장기적 전략으로서 추진해 왔는데, 특히 2003년에는 이라크전쟁, SARS,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등 불리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수확대에 더욱 치중하는 양상을 보였음.
- 그 동안 중국정부는 주로 투자견인을 통해 내수확충을 도모해 왔음. 이는 중국 경제가 노동, 자본의 이중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유효수요(총수요)가 부족하고 소비촉진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그림 2> 중국의 투자 및 소비 증가율 격차 추이



<그림 3> 중국의 총투자율과 최종소비율 변화 추이



□ 총투자율은 2000년에 36.4%에서 2002년 39.4%로 급상승했으나 최종소비율은 2000년 61.1%에서 2002년 58.2%로 하강

- 소비율이 장기간 저조하게 되면 투자성장이 소비수요의 지지를 잃게 되어 설비과잉, 기업효율 하락, 실업률 상승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

□ 투자 급증으로 인해 공업생산이 급증하여 2002년 12.6% → 2003년 17.0% → 2004년 1분기 17.7%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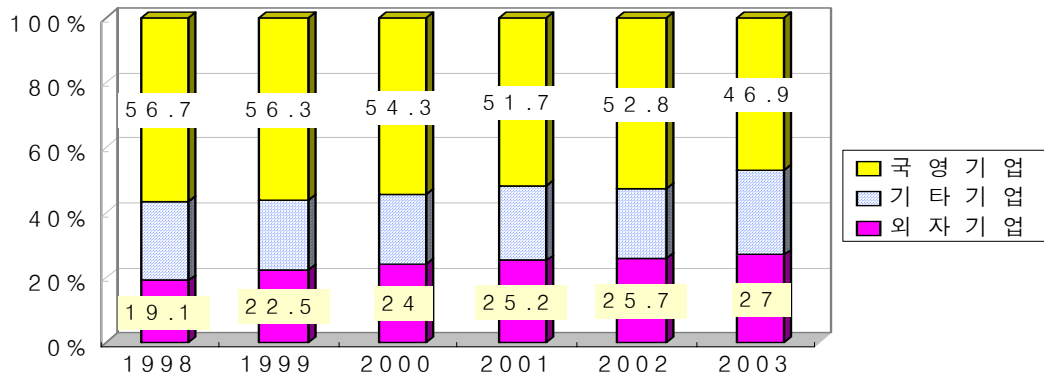
□ 상품수출은 WTO 가입 후 수출여건 개선, 弱달러에 페그된 위안화 등 요인에 힘입어 '02년 22.1% → '03년 34.6% → '04년 1분기 34.1%의 급증세를 시현

다. 외자기업이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주도

□ 중국경제는 노동과 설비의 이중과잉과 함께 국유기업의 비효율과 은행의 부실 금융 등 취약성을 안고 있으나, 수많은 외자기업이 산업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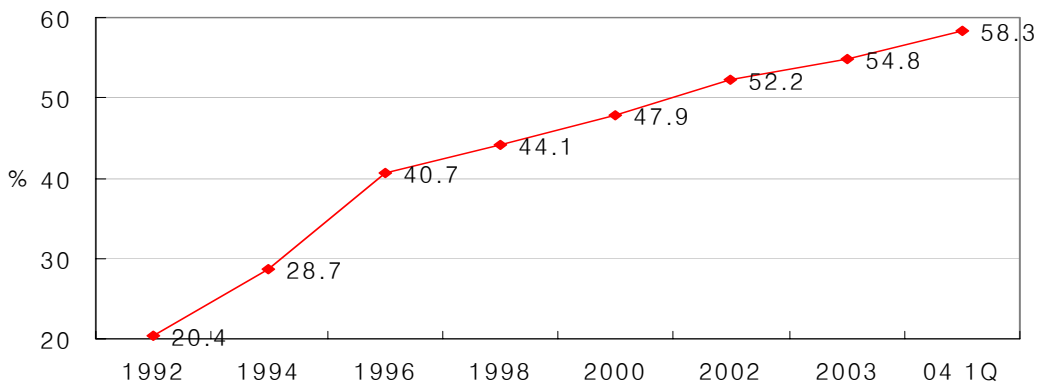
- 1990년대 이래 외자기업의 공업생산증가율은 줄곧 전체 공업생산증가율을 상회하여, 전체 공업생산에서 외자기업의 기여도가 빠르게 상승해옴.

<그림 4> 중국의 기업유형별 공업생산 비중



-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점하는 비중도 급상승해, 2004년 1분기 58%를 초과

<그림 5> 중국의 수출 중 외자기업의 점유비중 추이



- 공업생산 및 상품수출에 외자기업의 기여도가 급상승하면서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음. 총수출에서 기계·전기전자제품의 점유비중은 1994년 26% → 1999년 39% → 2003년 52%로,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8% → 13% → 25%로 빠르게 상승

라. 원자재가격과 식품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

□ 소비자물가는 2002년 -0.8% → 2003년 1.2% → 2004년 1분기 2.8%로 빠르게 상승중임. 양곡 및 농산품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류 가격 상승(7.1%)이 2004년 1분기 CPI 상승의 85.7%(CPI 2.8% 중 2.4% 포인트)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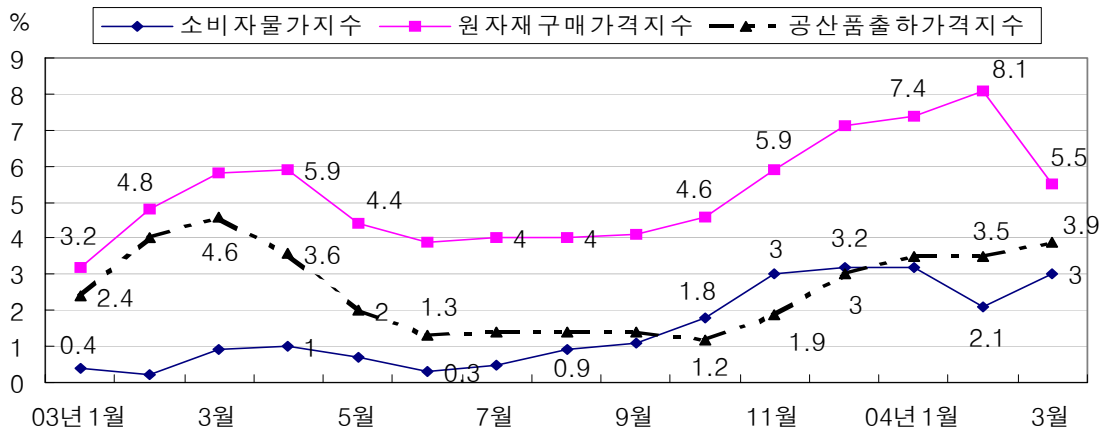
- 원자재구매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0.3% → 4.8% → 8.3%로 상승함. 2004년 1분

기에 특히 철강, 비철금속, 농부산품의 가격이 12~19% 상승

- 2004년 1분기의 GDP 디플레이터는 3.1%로 나타남.

- 총통화(M2)증가율은 2003년 20.8%를 정점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2004년 3월 말 현재 19.2%를 시현

<그림 6> 중국의 주요 물가지수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2004년 3월호 등.

2. 중국의 경기과열 논란과 전망

- 중국의 경기과열 논란과 관련해, 이것이 일시적 경기과열인가, 아니면 잠재성장률 이내의 고도성장 추세 진입인가가 중요한 논점이라 할 수 있음.

- 전자인 경우 : 중국이 긴축기조로 전환하거나 버블이 붕괴할 수 있음. 이 경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임.

- 후자인 경우 : 국제 원자재 수급난과 가격상승이 장기화될 위험이 큼.

- 지배적인 견해는 현재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9.5%에 달하며 이변이 없는 한 금년에도 8% 이상의 고속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중국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면 노동과 설비의 이중과잉이 악화되

어 실업률과 부실채권 증가 등 경제사회 불안이 증폭될 것을 우려

- 따라서 중국정부가 비록 부분적인 긴축조치를 취하더라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칠 정도로 떨어지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Global Insight* 최신호(5.7 홈페이지 등재)는 중국의 2004년 GDP 성장률을 8.3%, 물가상승률을 약 3%, M2 증가율을 약 18%로 예측

3. “중국발 쇼크”와 한국의 對中 경제교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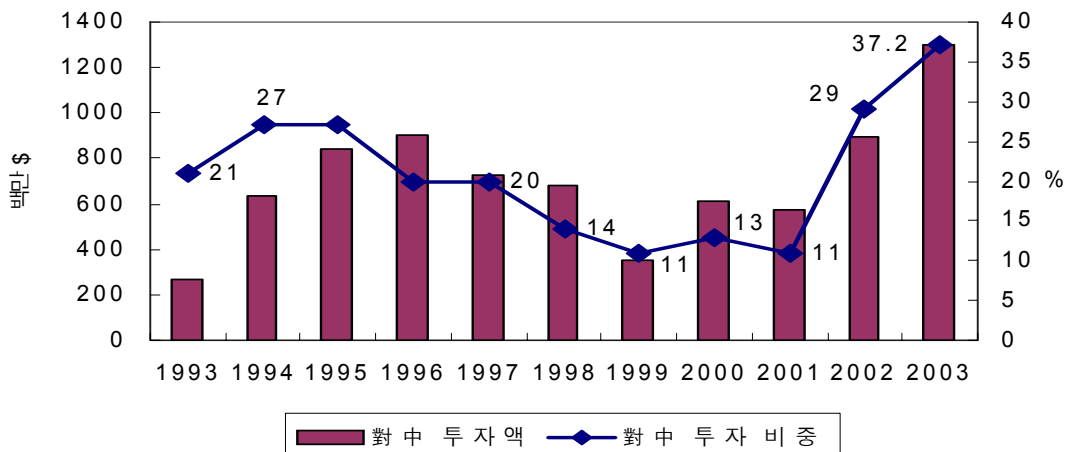
□ 일부의 우려와 달리, 중국경제의 급격한 긴축 내지 경착륙 가능성은 작으며, 한국의 對中 수출 증가율 급락 가능성도 크지 않음.

- 중국의 해외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 사이에 수년 전부터 동조현상 출현
 - 중국의 해외수출이 늘면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도 늘어나는 것임. 이는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의 약 70%가 부품·소재인 것에서 확인됨.
- 올해 중국의 해외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세계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이는데다가, 중국에 있는 수많은 외자기업이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04년 1분기에 중국의 해외수출 34% 증가, 한국의 대중 수출 51% 증가
-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직접투자에 의해서도 촉진되고 있음.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설비나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인데, 2003년 한국의 대중 투자(총투자 기준)는 50% 늘었고 올 1분기에도 29% 증가

□ 중국의 부분적인 경제긴축이 한국의 대중 경제교류에 미칠 직접적 파장은 업종과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부품·소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부문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중국내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건축의 주요 대상에 속하는 철강부문의 경우, 한국 철강업체의 대중 수출이 고급품 위주로 차별화되어 있어 수출감소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국내 은행대출 긴축으로 인해 현지에 있는 한국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한국의 대중 수출품에 대한 L/C 개설이 지연될 수 있음.
 - 중국에 투자한 업체의 현지 원자재 조달난과 전력·용수난이 단기에 해소되지 않겠지만, 투자과열이 진정되면 그 수급상황이 점차 호전될 것임.
 - 과열된 부동산개발 부문의 통제가 예상되므로, 고급주택이나 빌딩의 내장재 및 Built-in 전자제품 생산·판매 업종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농촌지역에 불법으로 조성된 개발구의 농지환원 방침의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불법조성 개발구에 입지한 일부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됨.
- 이번에 중국의 경기진정 방침이 “중국발 쇼크”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해온 사실을 반영
- 이미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과 최대 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고, 1분기에 한국의 총수출 중 19%, 해외 직접투자의 42%가 중국으로 향했음.

<그림 7> 최근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급증 추이



- 특히 중국측 통계로 본 한국의 對中 투자는 2003년에는 44.9억 달러로 65.1%의 폭발적 증가율을 시현했고, 올 1분기에는 13억 7,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홍콩(42.9억 달러), 버진아일랜드(17.5억 달러)에 이어 사실상 중국에 대한 1위의 투자국으로 부상

- 일본과 미국은 각각 11.4억 달러, 9.8억 달러를 기록

-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비교적 「손쉽게」 늘어나는 중국수출에만 안주하지 말고, 장차 우리의 대중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대중 수출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산 원부자재를 수입함으로써 인해 촉진되었으나, 장차 중국산 원부자재의 사용 비중이 늘어난다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임.

- 중국에서 조업 중인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04년 2~4월)에 따르면, 89개 응답업체의 56%가 원부자재 조달선을 장차 중국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중간 국제분업의 긴밀화 추세 속에서 중국은 한국에 커다란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 중국의 부상에서 오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험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길은 한국경제가 중국에 대해 경쟁력과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개발하면서 양국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있음.

- 제조업의 고도화나 성장동력산업의 개발이 지연된다면, 국내 자본과 인력이 중국으로 빠르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2003년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과 비교할 때 대중 직접투자가 점하는 비중은 0.7%로 아직은 낮은 수치임.

- 그러나 한국의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대중 직접투자가 점하는 비중은 2001년 1.1% → 2002년 1.5% → 2003년 2.3%로 빠르게 상승
- 종래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국제화 경영의 일환으로서 본사(뿌리)는 한국에 둔 지역적인 투자였으나, 앞으로는 뿌리까지 중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에서 조업 중인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04년 2~4월)에 따르면, 91개 응답업체의 33%가 이미 생산시설을 완전히 중국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남.
- 장차 한국은 거대한 중국경제의 변방으로 전락할 위험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국을 전세계적 분업과 글로벌 경영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전세계적 배치를 이루는 통상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